



습근평, 광둥 주해시 차량 돌진사건에 관해 중요 지시

부상자 치료에 최선 다하고 법에 따라 살인범 엄벌하며 위험원천 예방통제 강화하고 극단사건 발생 엄하게 방지해야

리강 회시

[북경 11월 12일발 신화통신] 11월 11일 저녁, 광둥성 주해시 향주구 체육센터에서 행인을 들이받는 차량 돌진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3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후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은 이에 고도로 되는 중시를 돌리고 중요 지시를 내려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광둥성 주해시 향주구체육

센터에서 행인을 향한 차량 돌진사건이 발생해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했는데 성질이 극히 악렬하다. 부상자들에 대한 구급치료를 진력하고 사상자와 가족을 위로하며 사후처리사업을 잘하고 법에 따라 살인범을 엄벌해야 한다. 각 지역과 관개부문은 교훈을 깊이있게 섭취하고 한가지 일로부터 류추하여 위험부담 원천에 대한 예방통제를 강화하며 모순과 분쟁을 제

때에 해소하여 극단사건의 발생을 엄밀히 방지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생명 안전과 사회안정을 최선으로 다해 보장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은 회시를 내려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선을 다해 부상자를 구하고 사후처리를 적절하게 잘하며 사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에 따라 살인범을 엄벌해야 한다. 예

방통제와 결부해 위험부담과 우환, 사회모순에 대한 조사와 해소를 실속있게 잘하여 사회 대국의 전반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습근평의 중요 지시에 따라 중앙은 이미 사업조를 현지에서 파견해 처리사업을 지도하고 광둥성과 주해시에서는 부상자 치료, 사건 수사처리, 사회면 예방통제 등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재판 사업은 진행중에 있다.

중점 분야 보장이 강력하고 융자 원가 안정 속 하락

우리 성, 실물경제 위해 봉사하는 금융의 질과 효과 향상

금융 관련 '5편의 큰 문장'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경제의 중점 분야와 취약한 부분을 지지했다. 기업 융자와 주민 신용대출 원가의 안정한 하락을 촉진했다. 금융 지원을 통한 부동산 증량정책의 현지 실시를 추진하여 효과를 보였다... 올해 전 3분기, 전 성 금융 운행은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총량 지표가 안정적으로 성장했으며 정책수단의 운용이 정확하고 효과적이었다. 신용대출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금융 지원을 통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의 질과 효과가 증강되었다. 9월말, 전 성 인민폐와 외화의 제반 대부금 잔액은 2조 882억 2,100만 원으로 년초에 비해 1,089억 8,000만 원 늘었다. 전 성 제조업의 중장기 대부금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성장, 전년 동기 대비 1.7% 포인트 높았다. 전력, 가스 및 물 생산 및 공급업의 중장기 대부금은 동기 대비 12.6% 성장했다.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융자량

증가면이 확대되었는데 9월말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부금은 동기 대비 15.5% 성장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 포인트 높았다. '3농' 발전을 적극 지지했다. 농가 및 농림목어업 대부금이 동기 대비 각각 13.6%와 11.0% 성장했다. 친환경 신용대부금이 빠른 성장을 보였는데 9월말 친환경 대부금은 동기 대비 19.2% 성장했다. 올해 들어 중국인민은행 길림성분행은 길림성과학기술 등 8개 부문과 연합하여 과학기술금융사업조를 구축하고 '금융길과(金润吉科)', 길림성 과학기술혁신 금융서비스능력제고 행동을 깊이 전개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 은행, 기업의 연결을 심화했는데 12개 금융기구가 성과과학 기술청과 전략적 협력협의를 체결하도록 추동했다. 전 3분기에 은행기구에 성내 과학기술혁신(科创)기업명단 정보 8,678조를 추천하여 과학 기술혁신주체의 융자 281억원을 촉진했다. 9월말, 전 성 과학기술형 기

업의 대부금 잔액은 1,132억 원으로 동기 대비 11.2% 성장했다.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부금 증량의 보급면 확대와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금융서비스 능력 제고 공정과 금융 지원을 통한 민영기업의 고품질 발전 전문행동을 깊이 시달했다. 9월 전 성 은행기구를 조직하여 개인공상업자 금융 지원 봉사의 달 활동을 전개했는데 활동 기간 전 성 은행기구는 루계로 개인공상업자 2만 3,600가구를 방문하고 1만 4,000가구에 40억 7,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향촌진흥 금융서비스를 추진하는 면에서 인민은행 길림성분행은 은행기구를 조직하여 농촌도로, 농업산업단지 및 농촌 주거환경 정비 등 분야의 신용대부금 투입을 확대했다. 금융 지원을 통한 식량 생산능력 향상과 농촌 신용대부금 제품 혁신 행동을 전개하고 은행기구가 중점적으로 식량안전, 향촌산업 등 분야를 둘러싸고 제품 혁신 강도를 높이도록

지도하였으며 농업 관련 대부금의 투입 확대를 촉진했다. 인민은행 길림성분행은 우리 성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에 출범한 부동산 금융정책을 참담게 관철 시달하고 금융 지원을 통한 부동산 증량정책의 현지 시달 효과를 적극 추진했다. 9월말, 전 성 부동산 개발 대부금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했다. 기업 융자와 주민 신용대부금 원가가 안정 속에서 하락했다. 1월-9월 기업 대부금 가중평균금리(加权平均利率)는 4.27%로 동기 대비 0.34% 포인트 하락했다. 길림성 여러 도시의 첫번째 구매 주택과 두번째 구매 주택의 상업성 개인주택 대부금 금리 정책의 하향선을 취소했다. 지난 9월, 길림성에서 새로 발급한 개인주택 대부금의 가중평균금리는 3.39%로 동기 대비 0.51% 포인트 하락했다. /길림일보

2025년 일부 명절 연휴 배치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북경 11월 12일발 신화통신] 2025년 일부 공휴일 배치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각 직속기구: 당중앙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4년 11월에 개제된 <전국 명절 및 기념일 공휴일 배치방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전민 공휴일수가 이를 늘어나게 되는데 설날과 로동절에 각기 하루씩 증가된다. 이에 근거해 공휴일 조절 원칙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보완하게 되는데 특별한 개별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력설은 설달그믐날부터 8일간, 국경절은 10월 1일부터 7일간, 로동절은 5일간, 양력설과 청명, 단오, 추석은 각기 휴식일과 결부해 조절, 3일간 이어 휴식한다(단기 수요일일 경우에는 당일 하루만 휴식). 국경절 휴가와 추석이 이어지면 합해 8일간 휴식한다. 양력설: 1월 1일(수요일) 하루 휴식, 휴식을 변경하지 않는다. 음력설: 1월 28일(음력설 설날 그믐날, 화요일)부터 2월 4일(음

력 정월 초이레, 화요일)까지 8일간 휴식하며 2월 8일(토요일)에는 출근한다. 청명절: 4월 4일(금요일)부터 6일(일요일)까지 3일간 휴식한다. 로동절: 5월 1일(목요일)부터 5일(월요일)까지 5일간 조절 휴식하며 4월 27일(일요일)에는 출근한다. 단오절: 5월 31일(토요일)부터 6월 2일(월요일)까지 3일간 휴식한다. 국경절과 추석: 10월 1일(수요일)부터 8일(수요일)까지 8일간 조절 휴식하며 9월 28일(일요일)과 10월 11일(토요일)에는 출근한다. 명절과 휴가 기간 각 지역, 각 부서는 당직 및 안전, 보안, 전염병 예방통제 등 사업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며 중대한 돌발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대중들이 조화롭고 평안하게 명절 연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 2024년 11월 12일

연변·녕파 문화관광산업 전략협약 체결식 룡정시

11일, 연변·녕파 문화관광산업 전략협약 체결식 및 녜파 지원 건설 프로젝트 '하우·명동(夏雨·明东)' 개업식이 룡정시 지신진 명동촌에서 열렸다. 이날 연변문화관광연맹과 녜파러 행사협회, 절강성지역경제촉진회, 절강성체육관광국, 절강성체육관광국 추진회가 공동으로 문화관광산업 전략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연변과 녜파의 문화관광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발전하고 두 지역간 문화관광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보인다. 녜파시 지원 건설 프로젝트인 '하우·명동' 정품민박마을은 2020년에 기공 및 설계를 시작하여 2021년에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갔다. 이 프로젝트는 상산영화성개발유한회사, 상산현공업투자그룹유한회사, 녜파 하우우인문화미디어유한회사 등 3개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2단계로 나누어 건설될 예정이다. 1단계 총 투자액은 5,600만 원이고 건축면적은 약 6,000평방미터이다. 현재 프로젝트 1단계 접대센터의 18개 객실과 5채의 독채 민박주택이 건설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는데 관광객들에 고품질의 류숙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지신진 명동촌은 룡정시 동남부에

위치해있으며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기반시설이 완벽하며 생태환경이 우월하다. 촌에는 현대농업생태레저, 무형문화유산전승, 조선족 특색 민박 등 대표적인 관광 프로젝트가 있으며 현(시)급 문화보호단위가 3개 있다. 명동촌은 중국 조선족교육 제1촌이자 조선족교육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민족사무위원회로부터 '중국 소수민족 특색마을'로 지정되었는데 독특한 문화적 매력과 자연 풍광은 수많은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명동촌은 '중국전통촌락', '중화 아름다운 레저향촌', '전국 향촌관광 중점촌', '전국 흥색 아름다운 마을 건설 시범촌' 명목에 수록되었으며 6년 연속 '길림성명동촌진'으로 선정되었는데 하면 길림성 3A급 향촌관광경관단위이며 제1진 길림성 력사문화명촌이다. '하우·명동' 정품민박마을은 '절강성지역경제촉진회 연변 지정 룡양 휴양기지', '절강성체육관광국 추진회 연변 씨비스 파드너', '녕파러 행사협회 연변련락지점', '상산 영화드라마그룹 연변 외경 촬영지', '연변녕파사회 지정 접대 씨비스 기관' 등 명칭을 부여받았다. /유경봉기자

연길=녕파=귀양 왕복 항공편 개통

11월 10일 오후 4시, 구원항공의 AQ1359 항공편이 연길조양천국제공항에 순조롭게 착륙하면서 연길에서 녜파를 경유하여 귀양에 이르는 왕복 항공편이 정식 개통되었다. 이 로선은 매주 월, 수, 금, 일요일에 운항하며 보잉 737기종으로 비행한다. 비행시간을 보면 오전 9시 25분에 귀양 룡동보공항에서 리륙하여 12시 정각에 녜파 락사공항에 도착, 오후 1시에 녜파에서 출발하여 오후 4시에 연길조양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귀양 항공편은 16시 45분에 연길에서 리륙하여 19시 55분에 녜파에 도착, 20시 45분에 녜파에서 출발하여 23시 40분에 귀양에 도착한다.

당일 녜파 문화여행사협회, 려 행사협회, 절강성지역경제촉진회, 절강성체육관광국, 절강성체육관광국 추진회 등 20여개 기업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찰단이 특별히 연변에 와서 관광답사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해 토대를 다졌다. 이 로선의 개통으로 연변, 녜파, 귀양 이 세 지역의 공중통로가 구축되었다. 그중 귀양은 새 운항지로 연길과의 첫 통항을 실현, 연변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상업무역, 산업, 관광 등의 상호 연결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 더욱 더욱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주었다. /실습생 윤하림

10월 길림성 주민 소비 가격 전년 동기와 맞먹어

국가통계국 길림조사총대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길림성 주민 소비 가격은 전년 동기와 맞먹었다. 그중 식품 가격은 2.9%, 비식품 가격은 0.6% 하락했다. 소비자 가격은 비슷했고 씨비스 가격은 0.2% 올랐다. 10월, 식품과 담배, 술류 가격은 전

년 동기 대비 2.1% 상승해 CPI(주민물가지수) 상승에 약 0.6% 포인트 영향을 미쳤다. 식품 가운데 신선한 채소 가격은 26.2% 상승해 CPI 상승에 약 0.4% 포인트 영향을 미쳤다. 신선한 과일 가격은 8.4% 상승해 CPI 상승에 약 0.2% 포인트 영향을 미쳤다.

가죽 고기 가격은 0.8% 하락했는데 그중 돼지고기 가격이 14.4% 상승하여 CPI 상승에 약 0.2% 포인트 영향을 미치고 소고기 가격이 20.1% 하락하여 CPI 하락에 약 0.2% 포인트 영향을 미쳤다. 닭알 가격은 2.2% 하락했다. 기타 7대 류형의 상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가지 상승, 2가지가 하락'되었다. 그중 기타 용품 및 씨비스, 의료보건, 교육문화오락, 생활용품 및 씨비스, 주거 가격은 각각 5.0%, 0.5%, 0.3%, 0.2, 0.1% 상승하고 교통통신, 옷 가격은 각각 5.1%, 0.8% 하락했다. /길림일보



2024/2025 시즌 전국 피겨스케이팅 소년선수권대회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길림시빙상운동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경기장에서는 화려한 경기복을 입은 선수들이 빙판 위에서 나폴나폴 춤을 추며 피겨스케이팅의 매력과 맛을 한껏 뽐냈다. /길림일보